

2020년 1월 둘째 주 주요 기사 스크랩

[주요뉴스]

매경프리미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에 2020년이 중요한 이유 (p. 1-3)

BioSPECTATOR 대응제약, 'EPO제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p. 4-5)

OhmyNews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재선의 의미 (p. 6-9)
모든 사람은 기자다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 금융영토를 넓혀라] KB국민카드, 동남아 공략 박차... 인도네시아에서도 성과 거둘까 (p. 10-11)

중앙일보 대구대, EAST-ASIA센터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체결 (p. 12-13)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에 2020년이 중요한 이유

방정환 입력 : 2019.12.27 15:01



▲ 자카르타 중심부의 공유 오피스에서 개최된 스타트업 투자 설명회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45] 인도네시아에 2019년은 어느 때보다도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그 출발점은 지난 3월 말 개통된 인도네시아의 첫 도심고속철도인 자카르타 MRT 1호선 1단계 구간이었다. 자카르타의 만성적 교통난을 완화시켜 줄 편리한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연말 상업 운영을 시작한 LRT(경전철) 1단계 구간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4월 중순에는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가 총선 및 지방 선거와 나란히 치러졌다. 재선에 성공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은 8월 하순 행정 수도를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침을 공식화 하면서 국내외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어 11월 하순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수반으로는 처음 한국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최종 타결하기도 했다.

새로운 10년의 닳을 올리는 2020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인도네시아 여기저기서는 들뜸과 설레임이 감지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분야들도 있다.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의 형성과 발전에 핵심 동력 역할을 해 온 스타트업계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를 상징하는 선두 주자들을 둘러싼 우울한(?) 소식들이 하나둘씩 들려오고 있다. 바로 각각 기업 가치가 100억달러, 10억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을 지칭하는 데카콘(decacorn)과 유니콘(unicorn)들의 앞날에 대한 의구심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는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 2010년대 중반 이래 눈부신 성장가도를 달려 왔다. 동남아시아의 11개 유니콘 중 5곳이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점이 뜨거운 스타트업 열풍을 증명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데카콘 반열에 오른 모빌리티 분야의 고젝(Go-Jek)을 필두로 전자상거래 서비스 업체인 토크피디아(Tokopedia)와

부카라팍(Bukalapak), 온라인 여행 스타트업인 트래블로카(Traveloka)가 유니콘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재벌 리포그룹 산하의 전자결제 애플리케이션(앱) 오보(OVO)가 새롭게 유니콘 대열에 합류했다.



▲ 자바섬 중부에 위치한 족자카르타의 유명 식당에 마련된 고객 승·하차 장소

하지만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와 세계 최대 공유 오피스 업체 위워크를 휘청거리게 한 수익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인도네시아 유니콘들의 급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린 모양새이다. 고객들이 얼마 전 자사 앱에서 제공되던 생활형 서비스 고라이프(Go-Life) 대부분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외신에 따르면, 고객들은 기존 고객 주문의 약 90%를 차지한 마사지 및 청소 대행을 뺀 고라이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고객이 총거래액이 아닌 수익성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해석했다. 여기에 리포그룹 역시 최근 보유 중이던 오보 지분의 3분의 2가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그룹 창업자가 공개적으로 매달 5000만 달러 규모의 막대한 투자에 수반되는 현금 고갈 우려를 드러낸 가운데, 중국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 앤트파이낸셜이 뒤에 버틴 다나(DANA)와 합병설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9월에는 부카라팍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전체 직원의 10% 수준인 250여 명을 해고하고 서비스도 일부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자카르타 외곽의 레스토랑에서 오보를 통해 전자결제가 진행되는 모습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는 쏟아지는 투자를 등에 업고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달성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덩치 키우기에 몰두해 온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거품 논란이 거세지면서 질적 성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즉,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눈앞의 성과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미래 성장성을 앞세워 거침없이 질주해 온 인도네시아 유니콘들도 현재 수익성에 신경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장에서 몇몇 부문을 제외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를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전망도 일찌감치 흘러나오고 있다. 근본적인 수익성 이슈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스타트업계에 2020년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대웅제약, 'EPO제제'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기사입력 : 2020-01-06 09:54 | 수정 : 2020-01-06 09:54

바이오펙테이터 장종원 기자

에포디온, 최초 동물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 할랄 인증 획득..중동의약품 시장 진출 목표



대웅제약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적혈구 생성인자(Erythropoietin, EPO) 제제 '에포디온'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LPPOM MUI)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세계 최초의 동물세포 유래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할랄 인증이라는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대웅인피온은 대웅제약이 2012년 인도네시아 기업인 '인피온(Infion)'과 함께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수라바야에 인도네시아 최초 바이오의약품 공장을 준공해 인도네시아 최초의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인 '에포디온'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에포디온은 신장투석과 같은 만성신부전 환자와 항암환자를 위한 빈혈치료제로 2016년 12월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하고 2017년 4월 인도네시아 시장에 발매됐다. 출시 6개월만에 인도네시아 EPO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현재 4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대웅인피온은 에포디온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을 준비해왔다. 전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8억명으로 추산되며, 2060년에는 약 30억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이슬람 국가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해 할랄시장은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모든 산업군에 있어서 높은 잠재력을 지닌 시장으로 꼽힌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현지에서 유통되는 모든 음식료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제품 등에 할랄 인증 여부에 대한 표기를 의무화하

는 '할랄제품보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기관인 무이(MUI)는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싱가포르의 무이스(MUIS)와 더불어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 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MUI 할랄 인증은 중요한 성과로 여겨진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할랄 인증은 합성의약품 대비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대웅인피온은 에포디온의 허가 직후 할랄 인증을 위한 팀을 별도로 조직해 에포디온에 대한 할랄 인증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왔다. 그 결과 2017년 10월 할랄 인증 신청 이후 2019년 공장 실사를 거쳐 약 2년만에 할랄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대웅인피온은 이번 할랄 인증을 기점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허가를 준비 중인 상피세포 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 성장호르몬 제제 케어트로핀(Caretropin) 등 현지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다.

서창우 대웅인피온 대표는 "대웅제약은 이슬람 최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의 할랄 인증을 발판으로 해 3000억원 규모의 중동 EPO 시장과 후속 바이오 제품으로 80조원 규모의 중동 의약품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으로서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해 전세계 많은 무슬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재선의 의미

박준영(disciple0411) 0.01.06 16:34 | 중 업데이트 20.01.06 16:34

[누산따라 인도네시아 1] 조코위 대통령, 개혁과 안정 사이의 줄타기

누산따라(Nusantara)? 자바 고어로 '섬 사이'라는 뜻이다. 이는 수천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가로로 긴 인도네시아의 영토를 표현하는 단어로, 한국을 표현하는 '한반도'와 같이 인도네시아를 부르는 애칭이다. -기자말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비행으로 약 6시간 30분이 걸리며, 이 거리는 약 5295km이다. 인도네시아 영토 극서에서 극동까지 길이가 약 5120km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 이 방대한 길이 사이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조사된 것만으로 총 633개의 민족이 존재한다.

세계 109위의 상대적으로 작은 영토(한반도의 남쪽)와 단일한 민족(이라는 믿음)으로 구성된 한국의 상황에 익숙한 이들에게 '다양성의 나라'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인도네시아의 다양성이 만들어내는 끝없는 매력을 경험한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나누고 싶어한다.

필자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매력에 빠진 사람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인도네시아 생활 경험과 연구를 통해 느낀 인도네시아의 매력을 소개하는 작업을 이번 연재를 통해 차근차근 해나가려 한다.

약 6시간 30분이 걸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비행 시간을 처음 듣는 이들은 대부분 놀란다. 베트남과 필리핀 등 상대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인도네시아를 막연히 가깝게 느끼는가 하면 비슷한 이름 때문에 '인도'와 종종 헷갈리기도 한다. 인도네시아가 한편으로 '먼 나라'인 것이다.

이처럼 가깝고도 먼 나라, 인도네시아가 최근 우리와의 관계에서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도네시아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외교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이다. 이는 2017년 11월 신남방정책이 처음 천명된 곳이 인도네시아(11월 9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인니 비즈니스포럼')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19년 9월, 한국 야당의 한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4차산업 관련 협력 발언을 두고 '그 후진국(동남아 국가)에 가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은 배꼽 잡을 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당시 논란이 되었고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 드러난 것 같다는 불편한 인식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연재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 다양한 측면을 1998년 제도적 민주화 이후 현대사에 집중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과연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을 위한 제안이 '배꼽 잡을 일'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11월 22일(현지시간)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나 발리, 어느 곳에서든 할 기회가 있다면 우리 국민이 모두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 대통령궁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조코위 대통령.

인도네시아를 소개하는 첫 연재에서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아래 조코위)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를 둘러싼 여러 정보들을 통해, 인도네시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12월 조코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조코위 대통령은 5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선제 이후 두 번째로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다. 이외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1998년 이후 수하르토(Haji Mohammad Soeharto, 아래 수하르토) 군부 독재가 경제 위기 등을 이유로 촉발된 민중 항쟁과 대통령 사퇴했다. 하비비(Bacharuddin Jusuf Habibie, 아래 하비비) 당시 부통령이 과도 정부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한 이후 인도네시아 국회(MPR, Majelis Permusyawaratan Rakyat Republik Indonesia, 국민협의회)에서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은 와히드(Abdurrahman ad-Dakhl Wahid), 메가와티(Megawati Soekarnoputri, 아래 메가와티)였으며, 2004년 대통령 직선제 실시 이후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군부 출신의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아래 유도요노) 대통령을 선택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중도'를 표방하며 민주당(PD)당을 창당하고, 대선, 총선에서 승리한다. 유도요노 대통령이 재선을 통해 10년 집권한 이후 2014년 대선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직선제 실시 이후 첫 민간인 출신(군부 출신이 아닌)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이다. 또, 지방 도시인 솔로(Solo)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12년 투쟁민주당(PDI-P)의 후보로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의 시장이 된다. 약 2년이라는 짧은 재임 기간 동안 조코위 대통령은 자카르타 주지사로 기존 정치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대선 후보로 떠오른다.

소탈하고 검소한 이미지를 가진 조코위 대통령은 복지의 획기적인 확대, 도시 인프라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였고, 도시 빈곤과 홍수, 교통체증 등 자카르타의 만성적 도시 문제의 획기적 개선을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도네시아에서 기존에 주목받던 정치인들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군부 출신 혹은 유능하다고 인식되는 성공한 사업가 출신이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 듯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록 사업가 출신이기는 하지만, 사업가로서의 능력보다 자카르타 주지사 시절 행정 능력으로 평가받아 대통령 후보가 된 조코위 대통령에게 당시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걸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조코위 센터'라는 온라인 사이트(www.jokowicenter.com)를 개설하여 내각 장관 후보자 투표를 받았다. 1기 정부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신에게 거는 기대를 정확히 아는 것처럼 보였다. 경제 정책에서는 보호주의적 정책과 인프라 건설에 집중하며 경제 위기를 극복했고, 2018년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발전한 인도네시아를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조코위 1기 정부는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군부와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견제를 이겨내고 개혁 과제를 묵묵히 수행해낸 점에 대해 전문가들과 국민들은 좋은 평가를 내렸다.

2019년 대선에서는 2014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프라보워 후보와 재대결을 했는데, 2014년 대선 득표율보다 높은 득표율(조코위 대통령 55.5% 득표, 상대 후보와 약 10% 차이)로 당선한 점에서 잘 드러난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재선에 성공한 조코위 대통령에게 여전히 개혁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동시에 유능한 정치인의 모습도 보여줘야 했다. 조코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은 청년과 비무슬림 등으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지만, 동시에 다른 국민들의 요구에도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능한 정치인으로써 이미지를 갖기 위한 노력은 조코위 대통령의 개혁성에 열광한 지지층들에게는 실망감을 느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재선에서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이슬람 단체인 나다톨 울라마(Nahdlatul Ulama, 아래 NU)의 지도자인 마루프 아민(Ma'ruf Amin, 아래 아민)을 선택했다. 아민은 1943년생으로 고령이며 근본주의적이며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로 평가받는 NU의 지도자로, 조코위가 아민을 러닝메이트로 발표할 때, 예상을 깬 부통령 후보 지명으로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조코위 내각의 개혁성의 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여성 장관의 비율은 줄어들고 전체 평균 연령은 높아졌다. 특히 이번 내각에서 대선 승리 이후 상대 후보로 조코위 대통령의 이슬람 신앙으로 끈질긴 흑색선전을 펼친 프라보워 후보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며 또다시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러한 놀라움은 일부 지지자들에게는 실망감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실망감이 인도네시아 청년세대를 위주로 표출되기도 했다. 지난 2019년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청년 세대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는데, 주요 이유는 혼외성관계를 금지하거나 강간, 긴급 의료상황을 제외한 낙태 금지, 대통령 모욕과 신성모독 금지 범위도 확대 등으로 개혁에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안 개정예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

ISEAS(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동남아시아 연구기관)의 방문학자인 Deasy Simandjuntak은 이처럼 개혁과 안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조코위 대통령과 조코위 행정부를 두고 "조코위 대통령이 약간의 개혁을 희생하며 안정성을 확대하는 모습은 많은 지지자들을 실망시켰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막 출범한 정부인만큼 좀 더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며,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이 갖는 의미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환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환경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다당제를 채택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역동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글로벌 금융영토를 넓혀라] KB국민카드, 동남아 공략 박차...인도네시아서도 성과 거둘까

이보라 기자 입력2020-01-08 08:46



B국민카드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KB국민카드

KB국민카드가 동남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은 올해에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자동차·오토바이·내구재 할부금융 사업 등을 영위하는 현지 여신금융전문회사 'PT 파이낸시아 멀티 파이낸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KB국민카드는 단기적으로 본사의 지급보증 등으로 조달 비용을 절감해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시하고 현지 고객들의 특성에 맞춘 할부금융 상품을 확충해 우량 자산 중심의 영업을 펼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KB국민카드가 보유한 상품개발, 리스크관리, 디지털 핵심 역량의 지속적인 이전을 통해 할부금융 사업을 다각화하고 카드 프로세싱 대행 등 카드 사업도 개시해 소비자 할부 금융에서 신용카드에 이르는 초대형 종합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732 Access Denied.

KB국민카드는 캄보디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KB국민카드의 해외 첫 자회사이자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KB대한특수은행'은 2018년 9월 공식 출범한 이후 약 10개월 만인 지

난해 6월 한 달 동안에만 미화 9만6000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 누적 당기순이익 11만4000달러를 달성했다.

KB대한특수은행은 KB국민카드가 2018년 7월 캄보디아 TSB(Tomato Specialized Bank) 지분 90%를 인수하고 자회사로 편입한 현지 여신전문금융회사다.

이른 시일 내에 이 같은 성과를 낸 배경에는 현지 상황에 적합한 상품군 구성과 균형있는 대출 확장세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KB대한특수은행은 효과적인 영업활동과 광범위한 영업망 구축을 위해 현지인 중심으로 한 영업인력 충원에 나서는가 하면 자동차대출 상품과 주택담보대출 포트폴리오도 강화했다.

미얀마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2017년 양곤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이른 시일 내 법인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장은 신남방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취임 직후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해외 진출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글로벌사업부'를 확대 개편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해외사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글로벌 아카데미'도 신설했다.

이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사업구조 혁신을 위한 신규사업 영역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올해는 글로벌이나 PA사업들이 정상 궤도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남아 지역 Biz-line 확대를 해외 자산 비중을 꾸준히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

대구대, EAST-ASIA센터와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체결

[중앙일보] 입력 2020.01.09 15:56



(왼쪽부터)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사트리오 아디토모 실장, REPI 박길환 소장, EA센터 송정훈 대표·김창완 사장이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구대학교 소재 국제 지역경제정책연구소(REPI: Regional Economy and Policy Institute, 소장 대구대학교 박길환 교수)와 EAST-ASIA 센터(EA센터, 대표 송정훈)는 지난 8일 서울 종로 EA센터 본사 회의실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참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참석 기업들과의 논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부서장(Division Head)인 사트리오 아디토모(Satrio Adhitomo) 실장, 대신자산신탁 윤종열 부문장, 보성산업 신선한 팀장 등 건설사, 금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MOU를 통해 REPI는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부처 및 공기업 등과의 협의와 국내외 정책·투자기관 조율 업무를, EA센터는 국내 시공사, 금융사, 기타 관련 기업·기관들과의 협의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수도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본 방향 소개와 국내 기업들의 관심분야 청취 및 실질적인 사업참여 방안에 대한 협의로 참석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1월 중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관계부처와의 후속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면적 190만km²(한반도의 약 9배)에 인구 2.72억 명(동남아 전체 인구의 40%,

세계 4위)이 거주하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국가로,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의 2대 교역국이며 GDP 세계 16위에 자원이 풍부하고 평균 연령 29세로 젊은 인구가 많아 성장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도시과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침수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자바섬의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섬 동칼리만탄 지역으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이며, 총사업비는 약 4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총 사업비의 80%를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지난해 11월 25 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양국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REPI는 2015년 대구대학교에서 설립된 국제연구소로 경제개발 및 지역정책 연구분야에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협력해 왔다. 소장인 박길환 교수는 미국에서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아시아,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활동을 해 왔으며, 경제 및 지역개발의 이론뿐 아니라 민간과 공공부문 정책개발과 국제 협력 실무에도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EA센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제시와 혁신적인 국가경영을 뒷받침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번영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2013년 1월 출범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교류협력 증대방안에 대한 연구, 글로벌 리더 양성, 지방 건전화 사업, 국제포럼 개최 등 싱크탱크로 자리잡기 위한 활동과 함께 다양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국토부, 행복청, LH 등 공공기관을 통한 협력과 함께 다양한 민간분야에서의 참여 및 투자 협의가 본격화됨으로써 한국과 인도네시아간의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의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